

중견기업을 위한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

박 광 호[†]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A Master Data Management Framework for Medium-Sized Companies

Kwangho Park[†]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Hanyang University

In medium-sized enterprises that comprise of multiple business branches and companies, various types of information systems are constructed and operated. One of the difficult problems these enterprises face is that integrated information cannot be delivered due to loosely managed master data. This paper proposes an effective master data management framework for these enterprises. The framework is designed after comparing a tightly controlled centralization model with a co-ordinated centralization model. Through a case study on a customer master data integration project, the practicality of the framework is explored.

Keywords : Master Data Managemen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Data Quality

1. 서 론

중견기업은 신규 업종으로의 진출, 이질적인 기업 합병, 공장 매입, 인력 흡수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 규모를 확장하며 성장하게 된다. 단일 기업 내에서 다양한 업종의 사업부문을 추가하여 확장하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독립된 법인을 추가하여 그룹으로 확장하는 경우도 있다. 중견기업이 법인 형태이든 아니면 사업부문 형태이든 이질적인 업종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확장할 때 개별법인 또는 사업부문은 필연적으로 독립적인 사업 운영을 전제로 하게 되며 이에 따라 정보화도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중견기업은 기본적으로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을 운영하게 되고 다음 단계로 SCM(Supply Chain Management),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EM(Strategic Enterprise Management) 등으로 확

장하는 일반적인 정보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중견기업이 이와 같은 정보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 중 하나는 느슨한 마스터 데이터관리로 인해 통합 정보를 확보 할 수 없다는 점이다(Iervolino and Thomas, 1996). 예를 들어, 거래처 데이터, 품목 데이터가 사업부문별로 중복되어 존재하고 더욱이 그 값이 다르다면 이를 마스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관점에서 통합된 정보가 제공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 2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증 연구(박광호, 2007)에서는 회사규모가 생산마스터 데이터의 활용 수준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장 수, 종업원 수, 매출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마스터 데이터의 활용 수준이 오히려 떨어짐을 알 수 있다<표 1>. 이는 복수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이 제품별, 지역별, 시장별 사업장에 제조, 판매 등 일련의 직능에 대하여 포괄적인

논문접수일 : 2008년 06월 18일 논문수정일 : 2008년 11월 2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11월 24일

[†] 교신저자 oobepark@hanyang.ac.kr

※ 이 논문은 한양대학교 일반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HY-2007-G).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전사적인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통제 없이 사업부문에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 권한을 부여하였을 경우, 오히려 마스터 데이터의 활용도나 정확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표 1> 생산 마스터 데이터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분석 결과

항 목	생산 마스터 데이터 활용 수준	
	계수	유의도
최고경영자	.001	.990
ERP 교육	.016	.788
ERP 도입기간	.093	.016*
시스템유지관리	.140	.097
운영통제	-.096	.097
회사규모	-.131	.026*
사업환경	-.123	.034*
협업 IT화 마인드	.014	.811

주) * P < 0.05 수준에서 유의함.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복수 법인 또는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자 한다. 프레임워크는 강력한 중앙통제식 모델과 중앙 조정식 모델로 설계되어 장단점이 비교되었다. 본 프레임워크는 SAP의 MDM(Master Data Management)(SAP, 2003)을 참조하여 설계되었으며 마스터 데이터 중 중요한 코드 중 하나인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사례 연구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마스터 데이터 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는 생산 마스터 데이터 관리와 같은 특정 기능영역의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연구(김정숙, 2006), 생산 마스터 정보 자동 산출(정인재, 이영수, 2005), 시스템 컨설턴트 중심의 기술 보고서(김보성, 2006) 등에서 실무적으로 접근된 바 있으나 정보시스템 전반에 걸친 마스터 데이터 관리에 대한 이론적 프레임워크는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는 SAP와 같은 글로벌 ERP 솔루션의 MDM을 도입하지 않는 중견기업의 경우 기존의 정보시스템 간의 마스터 데이터 통합 및 관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마스터 데이터의 역할과 관리 필요성

2.1 마스터 데이터의 역할

마스터 데이터는 정보시스템의 기반으로서(박광호, 2003)

모든 기능영역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와 각 기능영역별로 사용하는 코드를 각각 정의하고 있다. 즉, 정보시스템에서 마스터 데이터는 실질적인 거래 처리를 위한 기준 역할을 수행한다. Thompson(1967)에 의해 정의된 조직 관계 유형 모델을 변형하여 데이터 간의 관계를 정의해볼 때 마스터 데이터는 거래 데이터와 일종의 공유적 상호의존(Pooled Interdependency)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코드, 품목코드, BOM(Bill of Materials), 부서코드, 단가정보 등을 영업, 생산, 구매 등의 기능영역에서 발생하는 거래 처리 시 참조하는 기준 데이터이다.

거래 데이터 입력 시 각종 마스터 데이터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터 데이터는 반드시 정의하고자 하는 실체(Entity)를 정확하게 나타내어야 한다. 마스터 데이터는 입력된 거래데이터의 통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이는 마스터 데이터가 다양한 거래 데이터들을 마스터 데이터를 중심으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거래처별, 품목별, 부서별 등 마스터 데이터를 중심으로 판매 데이터를 집계하여 다양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거래 데이터의 정합성(Alignment) 제고를 위해서 마스터 데이터의 품질 보증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필수 조건이다.

복수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의 경우, 이상과 같은 마스터 데이터의 역할을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공통된 마스터 데이터는 전사적으로 일관성 있는 사업 수행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사적으로 공통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비록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공통 마스터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부문별 사업성과를 통합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사업부문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된다. 더욱이 해외 사업장 또는 법인이 존재할 경우, 마스터 데이터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국경 없는 글로벌 경제 시대라 해도 지역간 물리적 거리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마스터 데이터는 반드시 일관성 있게 통제되고 그 결과 정합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2 마스터 데이터 관리의 필요성

정합성이 보장되지 않고 품질 이상이 있는 마스터 데이터는 잘못된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금융적 손실까지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마스터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까지 어렵게 하기 때문에 기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정보 사용자의 데이터 분석 및 의사결정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설계자와 운영자가 사용자에게 단순한 데이터 접근성을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높은 품질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또한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자와 운영자는 사용자의 작업 상황을 분석하고 그 작업에 완벽하고 적절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정원진, 김종원, 2005).

Bingi et al.(1998)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강력한 프로세스 통합은 한 부서의 오류가 전 부서로 전파될 수 있다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욱이 최초 부서의 오류는 타 부서로의 전파 과정에서 쉽게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도입 기업은 반드시 초기 데이터 오류에 의한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기 대응책을 강구하고 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교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취해야 할 절차를 기술하기 위한 공식적인 액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즉, 오류 발생 시점에 관련된 모든 부서에게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복수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에 있어 사업부문간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정보시스템은 완전히 사업부문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 전사적인 데이터통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 마스터 데이터가 전사적으로 통제되지 않고 사업부문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된다면 사업부문간 거래 데이터의 정합성은 실현될 수 없다.

정보시스템은 도입 기업에게 완벽한 프로세스 및 정보의 통합을 요구한다(Davenport 1998). 즉 정보시스템의 프로세스 통합은 도입 기업의 모든 조직에게 데이터를 공유하고 조화롭게 처리하기를 요구한다. 이와 같은 내부 조정의 요구는 결국 통제 조직(Aiken and Hage, 1968) 또는 정보시스템실의 권한을 강화하게 되고(Cheney and

Dickson, 1990), 그 결과 기업의 데이터흐름은 일관성 있게 되고 실시간 운영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복수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기업은 보다 강력히 마스터 데이터를 통제해야 한다. 통제 조직 강화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 내에서 마스터 데이터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보완되어야 한다.

3. 마스터 데이터관리 프레임워크

3.1 마스터 데이터 품질관리 관점

마스터 데이터의 품질은 한국 데이터베이스 진흥센터에서 제시한 데이터베이스 품질평가 확장모델의 데이터 값 부문에 대한 평가 기준인 완전성, 최신성, 정확성, 일관성 측면에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이춘열, 박현지, 2004). <표 2>는 이 모델에 체크 항목을 추가하여 구체화 한 것이다. 평가기준 중 완전성, 최신성, 정확성은 복수 사업부문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항목이며 일관성기준은 복수 사업부문의 구성된 조직의 경우, 사업부문간 일관성 유지 보장을 위해 체크 항목을 조정하였다.

첫째, 완전성은 마스터 데이터가 대상(Target)을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증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완전성 기준은 정의된 속성별로 합법적인 값이 누락되지 않고 입력되어 있는지를 체크하게 된다.

둘째, 최신성은 각 속성 값이 비록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최신 값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으며 과거 값들의 보존이 요구될 경우, 적절한 이력관리가 수행되고 있는지 체크하게 된다.

셋째, 정확성은 상기 두 조건이 만족된다 해도 사실과 다른 값이 입력되어 있거나 중복 값이 존재하는 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다.

<표 2> 데이터값 부문 품질평가 모델

평가대상 평가기준	데이터 값	체크항목
완전성	데이터 크기 및 범위 데이터 값 누락 여부	속성값이 합법적인 값으로 입력되어 있는가? 누락된 속성값은 없는가?
최신성	최신 데이터의 제공 여부	마스터데이터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 마스터데이터의 이력관리가 요구될 경우 적절한 이력관리가 수행되고 있는가?
정확성	데이터 오탈자 실제사실과 일치 여부 데이터중복	속성값 중 정확하지 않은 값이 존재하는가? 실제 사실과 다른 값이 입력되어 있는가?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해서 존재하는가?
일관성	데이터 속성정의와 값의 일치 여부 데이터 제약조건과 값의 일치 여부 동일 데이터의 상호 일관성	사업장간 속성 정의에 차이가 있고 값이 다른가? 사업장간 제약조건에 차이가 있고 값이 다른가? 사업장간 동일 마스터데이터에 대해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일관성은 사업부문 간 완전성, 최신성, 정확성에 일관성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예를 들어, 한 사업부문이 마스터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보했더라도 타 사업부문에서 문제가 있다면 전사적 차원에서의 일관성은 확보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관성은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사업부문간 관점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스터 데이터의 평가 기준별로 관리 주체를 정의할 수 있는데, 우선 완전성은 데이터베이스 내 해당 테이블의 스키마 설계에 반영하여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속성 값이 합법적인 값으로 입력되는지 여부는 속성별 도메인(Domain) 설정으로 관리하여 비합법적 값이 입력되는 시점에 거부할 수 있다. 누락된 속성 값 존재 여부는 속성별로 널(Null) 값 허용여부를 지정하여 입력 시점에 반드시 입력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신성, 정확성은 마스터 데이터 담당자가 판단해서 관리해야 할 항목이므로 각 체크 항목별로 관리 주기, 검증 방법, 수정 절차를 공식적으로 확정하여 시행해야 한다. 일관성은 사업부문간 완전성, 최신성, 정확성의 일관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이므로 전사 마스터 데이터 담당자가 각각 시스템 지원과 관리 절차 규정에 따른 검증 작업으로 관리해야 한다.

3.2 마스터 데이터의 정의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세계에 존재하는 유형, 무형의 정보가모인 것을 속성(Attribute)이라고 하며, 연관된 속성이 모인 것을 실체(Entity)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 또는 정보의 세계에서는 의미 있는 하나의 정보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각 마스터 데이터도 개별적인 실체로 정의하고 속성으로 설계될 수 있다. 마스터 데이터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스터 데이터(MasterData), 상위 마스터 데이터(SuperMasterData), 마스터 데이터이력(MasterDataHistory) 등의 추상 클래스(Abstract Class)로 구성된 패턴으로 정형화될 수 있다. 마스터 데이터 클래스는 대상 실체에 대한 현 상태, 즉 각 속성별 현재 값을 나타낸다. 상위 마스터 데이터는

이터 클래스는 마스터 데이터의 계층적 구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다수의 마스터 데이터 인스턴스(Instance)를 가지게 된다. 마스터 데이터 이력 클래스는 마스터 데이터의 변경 이력을 기록하기 위한 클래스로 속성 값에 변화에 생겼을 때마다 유효 기간과 함께 새로운 인스턴스를 추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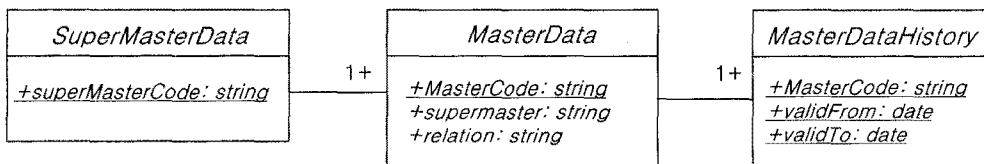
현재 모든 정보시스템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마스터 데이터 실체는 테이블 구조로 구현되며 속성 또는 컬럼(Column)으로 구성된 스키마(Schema)로 정의된다. 각 마스터 데이터의 구체적인 인스턴스는 정의된 속성 값으로 구성된 레코드로 입력된다.

모든 마스터 데이터 테이블은 식별자(Identifier)인 주키(Primary Key)를 갖는데 이는 테이블 내 레코드를 일의적(Unique)으로 식별할 수 있는 속성이다.

<그림 1>에서 밑줄 그은 속성은 주키를 나타내고 있다. 마스터 데이터는 단순히 마스터 코드(Master Code)로 인식되기도 한다. 정보시스템에서 거래 처리 시 많은 마스터 코드가 사용되며 이 마스터 코드 하나로 마스터 데이터 전체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스터 코드와 상위마스터 코드는 마스터 데이터 전체를 대변하기 때문에 주키로 인식될 수 있도록 문법적(Syntactic)이어야만 하며 의미적(Semantic) 값을 가지지 않는다. 반면에 나머지 속성들은 모두 의미적이며 타입(Type), 크기(Size), 기본값(Default Value), 합법적 값의 범위(Domain), 유일성(Uniqueness), 제약조건(Validation Rule), 필수입력(Required), 형식(Format) 등의 속성으로 정의된다.

3.3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복수의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은 단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다수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 특히 중견그룹인 경우에는 각 범위 또는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게 된다. 그룹 차원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해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일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더라도 사업부문별로 독립적인 마스터 데이터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경우



<그림 1> 마스터 데이터 패턴(연산 부분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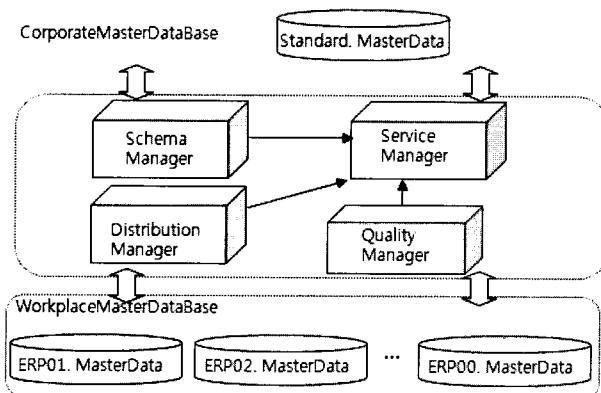
도 있다.

이상과 같이 복수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 ① 사업부 및 법인에서는 신규 마스터 데이터 발생 시 자체 정보시스템에 신규 마스터 데이터를 등록함과 동시에 본사 또는 그룹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에게 신규 마스터 데이터 생성을 요청해야 하며 본사 또는 그룹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는 요청된 신규 마스터 데이터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용 가능한 마스터 데이터를 등록 후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 ② 본사 또는 그룹본부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는 요청된 마스터 데이터를 심사한 후 승인 또는 반려 한다.
- ③ 승인된 마스터 데이터는 실 마스터 데이터로 확정되어 전사 또는 그룹 표준 마스터 데이터 태이블과 각 법인 및 사업부문의 정보시스템 마스터 데이터 태이블에 추가된다.
- ④ 법인 및 사업부문의 마스터 데이터 변경요청에 따라 본사 또는 그룹본부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는 전사 또는 그룹 표준 마스터 데이터 이력 테이블에 변경내역을 반영한다.

3.4 마스터 데이터 관리 컴포넌트

마스터 데이터 관리 컴포넌트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키마관리자(Schema Manager), 서비스관리자(Service Manager), 배포관리자(Distribution Manager), 품질관리자(Quality Manager)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컴포넌트는 사업부문별 마스터 데이터를 전사 마스터 데이터로 통합 관리하고 전사적인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림 2> 마스터 데이터 관리 컴포넌트

첫째, 스키마관리자는 사업부문별 마스터 데이터에 대

한 정의를 관리하게 된다. 동일한 마스터 데이터 실체에 대해 사업부문별로 관리하는 속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일한 속성일지라도 정의가 다르게 내려져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스키마관리자는 다른 컴포넌트에게 마스터 데이터 실체 정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의가 변경될 때를 이를 정확히 반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서비스관리자는 마스터 데이터관리의 주체로서 마스터 데이터관리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된다. 신규 마스터 데이터 태이블 생성, 신규 마스터 데이터 등록, 조회, 변경, 삭제 등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작업, 승인 절차에 대한 워크플로우(Work Flow) 기능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배포관리자는 서비스관리자를 보조하는 컴포넌트 중 하나로 마스터 데이터의 신규 등록, 변경 시 이를 해당 사업장 마스터 데이터 태이블과 표준 마스터 데이터 태이블에 배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넷째, 품질관리자는 서비스관리자를 보조하는 컴포넌트로서 주기적 또는 필요 시 마스터 데이터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수준을 완전성, 최신성, 정확성, 일관성 기준으로 평가하고 비정상성(Anomalies)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4. 사례 연구

4.1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보시스템에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란 중견기업의 각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거래하는 매출, 매입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업무로써, 동일 사업체에 대해 독특하게 구별할 수 있는 거래처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각 법인 및 사업장은 거래처 마스터의 생성, 변경, 정보관리, 이력관리의 주체로서 반드시 내부 CMO(Chief Master code Officer)의 승인으로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본사 또는 그룹 본부는 전사 또는 전 그룹 차원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통제의 주체로서 각 법인 및 사업장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에 대한 위험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는 체계적인 관리만이 실질적인 거래처 관련 거래 발생을 기록한 거래 데이터의 정확성, 추적성을 보장하게 되며 비체계적인 관리는 거래처 관련 정보의 왜곡으로 귀결되어 재무적 위험에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거래처별 신용, 채권 그리고 여신에 대한 각 법인 및 사업부문 단위에서의 관리뿐만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정보를 생성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시스템 마스터 데이터로써의 의미도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는 거래처와 관련되는 구매 및 채무관리 프로세스, 출고 및 매출채권관리 프로세스, 여신한도관리 프로세스 등과 같은 다른 주요한 프로세스를 위한 기본 프로세스로써 인식되고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 ①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의 유일성(Uniqueness)을 보장한다.
- ②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의 변경 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와 관련된 거래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제조, 건설, 유통 등 3개의 이질적인 업종의 7개 법인, 20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A그룹의 통합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의 적용사례를 소개한다.

4.1.1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정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클래스모델은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림 2>에 정의된 마스터 데이터 패턴에 따라 거래처(Customer), 상위거래처(SuperCustomer), 거래처이력(CustomerHistory) 클래스로 구성된다. 거래처는 유일하게 인식할 수 있는 숫자, 알파벳 등으로 결합된 거래처코드(customerCode)를 주키로 정의하고 이를 통해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게 된다. 거래처는 매출거래처, 매입거래처로 구분되는데 이를 거래처유형(customerType) 속성에 지정하게 된다. 동일한 거래처가 다수의 사업체(법인 또는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사업체별로 독립적인 사업자등록번호(registrationNumber)를 가지게 되고 각 사업체별로 독자적인 거래처코드를 부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다수의 거래처로 구성된 경우, 대표거래처를 선정하여 이를 상위거래처로 등록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상위거래처에는 다수의 하위 거래처가 존재하게

되는데 상위거래처에 대해 주문처, 납품처, 발행처, 수금처 등의 관계를 관계(relation) 속성에 저장하게 된다. 대표 거래처는 상위거래처코드(superCustomerCode)가 자신의 거래처코드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된다.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는 거래처코드를 주키로 하여 거래처에 관련된 사업자정보, 일반정보, 업무정보, 회계정보 등으로 구성된다. 거래처코드는 가능하면 문법적 의미만을 갖는 가상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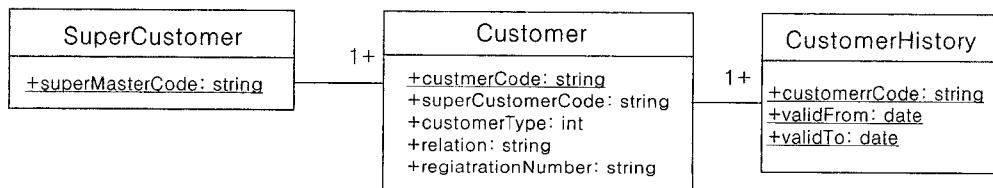
거래처 이력은 거래처 정보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록하여 정보 변경 이력을 관리하게 된다. 유효기간(validFrom, validTo) 속성은 해당 거래처 정보의 변경 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이 기간 중에만 변경 사항이 유효함을 나타낸다. 거래처는 항상 현재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로 반영되어야 하며 과거 정보 값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거래처이력에서 조회해야 한다. 이와 같이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4.1.2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이 거래처코드에 미치는 영향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의 거래처코드는 거래처를 유일하게 구별해 낼 수 있는 식별자이다. 또한, 거래처코드는 거래처의 사업 계속성에 따라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거래처가 폐업된다면 해당 거래처코드는 더 이상 향후 거래 처리에 사용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과거 거래 마스터 데이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삭제하지 않고 사용여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표기하여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인식 대상인 거래처 자체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이런 거래처를 기존의 거래처코드로 계속해서 인식해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부 또는 외부 환경 변화에 의해 부득이 폐업하고 다시 설립하는 경우, 즉,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취소되고 신규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 받았을 경우에 기존의 거래처코드로 계속해서 이런 거래처를 인식해야 하는가?



<그림 3>고객 마스터 데이터 클래스(연산부분 생략)

- ② 거래처가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로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다른 거래처로 인식하고 신규 거래처 코드를 부여해야 하는가?
- ③ 거래처가 상호변경, 업종/업태변경, 주소지 변경 등의 정보를 변경했을 때 이에 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4.1.3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책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책을 논하기 전에 우선,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자.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는 회계 관리와 비회계 관리로 나누어서 분류해 볼 수 있다.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는 중견기업의 각 법인 및 사업부문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동일한 거래처와 다른 법인 또는 사업부문 사이에 거래 관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전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 볼 때 공통 관리해야 하는 마스터 데이터다. 본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 각 법인 및 사업부문의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집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데이터로써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 거래처에 대해 유일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결정하고 이를 각 법인 및 사업부문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채권관리에 있어 본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 거래처 별 여신한도와 이에 대비한 사용여신을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위험 관리를 해야 하므로 반드시 전 법인 및 사업장이 동일 거래처에 대해 동일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룹 차원의 공통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 ① 법인 또는 사업부문별로 거래처에 대해 관리하는 업무 방식과 데이터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② 기존에 사용하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공통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로 변경하는데 있어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 ③ 본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전담할 인력이 요구된다.
- ④ 법인 및 사업장 입장에서 신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할 때마다 그룹 거래처 마스터 관리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하므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감안할 때 본사 또는 그룹 차원에서의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요구와 개별 법인 및 사업장 차원에서의 개별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요구를 모두 수용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중견기업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① 각 법인, 사업장은 각각 독자적인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한다.
- ② 사업자등록번호로 본사 또는 그룹 차원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집계 관리한다.
- ③ 통합구매 거래처가 늘어나는 시장환경을 고려하여 상위거래처코드(법인)와 하위거래처코드(사업장)로 구성되는 계층적 마스터 데이터 구조로 정의한다.
- ④ 거래처 코드는 기본적으로 세법상 관련되지 않는 단순한 관리코드이며 내부 관련 데이터(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태, 주소, 상호명 등)가 지속적으로 변경되므로 기간 개념을 독특성 유지에 포함하기로 한다. 즉, 하나의 거래처에 대해 거래처코드와 일정기간(validFrom-validTo)을 결합하여 독특한 거래처 식별자로 사용하기로 한다.

4.2 대안 1 : 법인 및 사업장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유지 방안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대안 1의 기본사상은 각 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사용 중인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체계는 유지하면서 법인과 사업부문별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단일화하고 본사 또는 그룹 차원의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 구조를 최소 변경하는 방향에서 다음과 같이 설계 한다.

- ① 기존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는 각 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며 본사 또는 그룹 차원의 매출, 채권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신설한다.
- ②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신규 거래처 발생 시 각 정보시스템에는 기존의 방식처럼 등록을 하고 본사 또는 그룹 차원의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한 승인요청기능(프로그램)을 각 정보시스템에 신설한다.
- ③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승인 요청된 신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한다.
- ④ 본사 또는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가 승인되면 승인이 되었음을 각 법인 및 사업부문 정보시스템의 거래처 마스터 테이블에 반영한다.
- ⑤ 표준 거래처 마스터 테이블과 각 정보시스템 거래처 마스터 테이블에 상위거래처 코드를 추가하여 거래처가 다수의 사업부문별로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에 통합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 ⑥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표준 거래처이력 테이블을 생성, 유지한다.

대안 1을 채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선행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①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 및 사업부문은 먼저 자체적으로 사업자번호별로 거래처 마스터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②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데이터를 신청하기 위한 기능(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
- ③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④ 정보시스템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테이블에 상위 거래처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⑤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이력관리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한편, 대안 1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 ①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는 신규 거래처가 발생 시 자체 정보시스템에 신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등록함과 동시에 그룹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에게 신규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생성을 요청해야 하며 그룹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는 요청된 신규 거래처의 심사과정을 거쳐 사용 가능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부여(등록) 후 요청자에게 통보한다.
- ② 전사 또는 그룹본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는 요청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심사한 후 승인 또는 반려 한다.
- ③ 승인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는 실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로 확정되어 전사 또는 그룹 표준거래처 마스터테이블과 각 법인 및 사업부문의 정보시스템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테이블에 등록된다.
- ④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요청에 따라 전사 또는 그룹본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는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이력 테이블에 변경내역을 반영한다.

대안 1에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 시 이에 대한 이력관리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 ① 기존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는 현행과 동일하게 정보시스템에서 각각에서 관리하며 그룹차원의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한 별도의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이력정보를 관리한다.
- ②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 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에는 기존의 방식처럼 변경 등록을 하고 그룹차원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변

경하기 위한 승인요청기능(프로그램)을 각 정보시스템에 신설한다.

- ③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승인 요청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 건을 통합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한다.

대안 1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① 동일 거래처에 대해서 사업장 또는 부서별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법인 또는 사업부문은 먼저 자체적으로 사업자번호별로 거래처 마스터를 단일화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②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전사 또는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기능(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
- ③ 전사 또는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한편, 대안 1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 ① 법인 및 사업부문에서는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 건 발생 시 자체정보시스템에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사항을 등록함과 동시에 전사 또는 그룹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에게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전사 또는 그룹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는 요청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에 대한 심사를 한다.
- ② 전사 또는 그룹본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는 요청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사항을 심사 후 승인 또는 반려 한다.
- ③ 전사 또는 그룹본부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가 승인한 경우는 그룹 표준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이력 테이블에 변경내역을 반영한다.

4.3 대안 2 : 그룹 공통 단일 거래처 마스터 적용 방안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2안)의 기본사상은 정보시스템에서 각각 사용 중인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 단일화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 ①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신규 거래처 발생 시 그룹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의 통합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테이블을 생성, 유지한다.
- ②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신규 거래처 발생 시 그룹 차원의 통합 거래처 코드를 생성하기 위한 승인요청

기능(프로그램)을 각 정보시스템에 신설한다.

- ③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승인 요청된 신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한다.
- ④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그룹 통합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이력 테이블을 생성, 유지한다.

대안 2를 채택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선행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① 기존에 사용 중인 모든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각각 단일화하여 그룹 공통의 새로운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로 변환하여야 한다.
- ② 각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정보시스템 중 기존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화면/프로그램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련 부분을 수정 하여야 한다.
- ③ 각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정보시스템 중 기존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모든 테이블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신 거래처 마스터로 변환작업 하여야 한다.
- ④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그룹 통합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신청하기 위한 기능(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
- ⑤ 그룹 통합거래처 마스터데이터를 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 ⑥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이력관리 기능이 있어야 한다.

대안 2에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 시 이에 대한 이력관리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 ①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의 변경사항 발생 시 전사 또는 그룹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단일의 통합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이력관리 테이블을 생성, 유지한다.
- ②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변경 건 발생 시 전사 또는 그룹차원의 통합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변경하기 위한 승인요청기능(프로그램)을 각 정보시스템에 신설한다.
- ③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 승인 요청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사항을 통합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 등)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추가 개발한다.

대안 2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① 기존에 사용 중인 모든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거래처코드를 사업자번호 기준으로 각각 단일화하여 전

사 또는 그룹 공통의 새로운 거래처코드로 변환하여야 한다.

- ② 각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정보시스템 중 기존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든 화면/프로그램 을 수정 하여야 한다.
- ③ 기존의 정보시스템에 그룹 통합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을 신청하기 위한 기능(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
- ④ 전사 또는 그룹 통합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접수/심사/승인/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되어야 한다.

한편, 대안 2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관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설계되었다.

- ① 법인 또는 사업부문에서는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사항 발생 시 전사 또는 그룹 거래처코드 관리자에게 통합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을 요청한다.
- ② 전사 또는 그룹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자는 요청된 거래처 마스터 변경사항을 접수하여 심사과정 을 거쳐 승인 또는 반려한다.
- ③ 요청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의 변경이 승인된 경우 변경사항이 전사 또는 그룹 통합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이력관리 테이블에 반영된다.

4.4 대안비교

1안은 사업부문 및 법인별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유지하면서 전사 또는 그룹 차원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반면에 2안은 사업부문 및 법인별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가져갈 수 없고 전사 또는 그룹 공통 단일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표 3>과 보는 바와 같이 두 가지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대안 1은 시스템의 부하면이나 시스템 수정 및 보완면에서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장점이 있으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 시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서 대안 2는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가 중견기업 내 모든 법인 및 사업부문에 실시간의 동기화 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스템 부하 및 시스템 수정 및 보완면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4.5 구현 방법

각 대안별 구현 방법은 <표 4>와 같이 요약될 수 있는데 우선 공통적으로 전 법인 및 사업부문의 거래처마스터 데이터를 사업자번호로 독특하게 정의하여 등록하

<표 3> 대안 비교

구 분	법인 또는 사업부문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유지	전사 또는 그룹공통 단일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적용
공통	그룹차원의 매출/채권/수금정보의 통합이 가능	
동기화	거래처 마스터 변경 시 전사 또는 그룹 표준거래처테이블에만 반영되며 타 법인 또는 사업부문 거래처 마스터에는 반영되지 않음	100% 실시간 동기화 가능
시스템 부하	현재와 별 차이 없음	전사 또는 그룹 내 전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정보시스템이 공통의 거래처 마스터테이블을 사용함으로써 빈번한 거래처 마스터의 생성 및 거래처 마스터의 변경 등으로 과부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시스템 수정/보완	전사 또는 그룹 표준거래처 마스터 등록을 위한 승인 요청 및 관리기능(접수/승인/통제) 추가 개발이 필요	전사 또는 그룹 표준거래처 마스터 등록을 위한 승인요청 및 관리기능(접수/승인/통제)의 추가 개발이 필요하고 기존 정보시스템의 대대적 수정 및 보완 작업 필요하며 기존 정보시스템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작업 필요함.

<표 4> 구현 방법

구 분	법인 또는 사업부문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유지	전사 또는 그룹공통 단일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적용
공통	전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거래처 마스터를 사업자번호 단위로 독특하게 정의	
정보시스템 수정	사업자번호를 관리하지 않는 정보시스템 보완하고 정보시스템에 그룹 표준거래처 마스터 등록 신청을 위한 기능 추가 개발함.	그룹통합거래처 마스터 사용에 따른 거래처 마스터 변경으로 정보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변경 및 테이블 구조 변경 작업이 수행되어야 하며 기존 정보시스템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변경작업과 정보시스템에 그룹 통합거래처 마스터 등록신청을 위한 기능이 추가 개발되어야 함.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관리 시스템 개발	그룹 표준거래처 마스터 등록을 위한 승인요청 및 관리기능(접수/승인/통제) 추가 개발이 필요함.	

여야 한다. 구현의 기준의 각 사업부별 정보시스템을 수정하는 작업과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관리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작업으로 나누어진다.

4.6 역할 및 책임(Role and Responsibility)의 정의

전사 차원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표 5>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각 법인 및 사업부문, 그룹 본부, 그리고 정보시스템 부서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4.7 적용 결과

A그룹은 단기간에 최소 비용으로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안 1을 선택하여 약 4개월간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그룹 통합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전 법인 및 사업부문의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함으로써 A그룹은 다음과 같은 그룹 차원의 통합정보를 생성하여 경영 의사결정에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① 거래처 매출 정보 : 거래처별 그룹매출현황 집계, 순위 등
- ② 거래처 출고 정보 : 거래처별 그룹출고현황
- ③ 거래처 여신 정보 : 거래처별 그룹사용여신현황
- ④ 거래처 채권 정보 : 거래처별 그룹채권현황
- ⑤ 거래처 입금 정보 : 거래처별 그룹입금현황
- ⑥ 거래처 손익 정보 : 거래처별 그룹손익현황
- ⑦ 거래처 성과지표 정보 : 매출, 여신, 채권, 입금, 손익 등의 지표를 기반으로 한 거래처 등급 현황

거래처 마스터 데이터의 통합 효과를 경험한 A그룹은 20여개 법인, 사업부문간 통합 정보 범위를 확대하여 회계계정코드 관련 마스터 데이터, 자재 품목 마스터, KPI(Key Performance Indicator) 마스터 등을 통합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5. 결 론

국내 중견기업이 정보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전체의 마스터 데이터 통합

〈표 5〉 역할과 책임

구 분	법인 또는 사업부문 거래처 마스터데이터 유지	전사 또는 그룹공통 단일거래처 마스터데이터 적용
법인 또는 사업부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부의 정보시스템의 거래처코드를 사업자번호단위로 유일하게 정리 ◦ 중복되는 거래처 마스터 단일화 작업 시행 	
전사 또는 그룹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또는 사업부문별 사업자번호기준의 거래처 마스터 정리 작업 지침 시달 및 진행 감독 ◦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체계/관리 프로세스 수립 및 현업통보 ◦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관리자(부서) 확정 ◦ 사업자번호기준의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관리 : ◦ 법인 또는 사업부문의 신규 거래처 승인요청에 따른 접수/심사/승인 처리 	
정보 시스템 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관리(승인요청/접수/승인/이력관리 등)기능의 신규 개발 ◦ 기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수정 작업 : 상위거래처마스터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표준 거래처 마스터 관리(승인요청/접수/승인/이력관리 등)기능 신규 개발 ◦ 기존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작업 : 거래처 마스터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에 대한 수정 작업 ◦ 기존 정보 시스템의 거래처코드 마스터 변경 작업

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보시스템 도입 기업에서 마스터 데이터가 사업부문 또는 법인 별로 독립적인 마스터 데이터를 정의하고 사용함으로써 종종 데이터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동기화 되지 않은 마스터 데이터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나 관련 정보는 기업 활동의 리스크, 자원, 시간, 금융비용의 발생 및 고객 불만을 증대시키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복수의 법인 또는 사업부문으로 구성된 중견기업의 마스터 데이터관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사례 연구를 통해 사업부문별로 정보시스템을 별도로 사용하고 있거나 하나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사업부문별로 마스터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스터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향후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할 때 그 동안 간과해 왔던 마스터 데이터에 대한 통합적 관리 방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보성; 데이터관리의 방법론 및 실행 전략, 경영과 컴퓨터, 2006.
- [2] 김정숙; 중견 제조기업에 적합한 생산 마스터 정보 관리 솔루션 개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1(3) : 98-105, 2006.
- [3] 박광호; uniERPII 입문, 제2판, 명경사, 2003.
- [4] 박광호; 협업 IT화 사업에 있어 협력업체 ERP 활용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30(3) : 71-81, 2007.
- [5] 이춘열, 박현지; 데이터베이스 품질 평가에 관한 사례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and Management, 11(4) : 209-225, 2004.
- [6] 정원진, 김종원; 상황 데이터 품질이 의사결정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정보학연구, 15(3) : 41-64, 2005.
- [7] 정인재, 이영수; TFT-LCD 공장의 제조기준정보 자동 산출 시스템 구축 사례,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28(1) : 41-48, 2005.
- [8] Aiken, M. and Hage, J.; "Organizational Interdependence and Intra-Organization Structur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3 : 912-930, 1968.
- [9] Bingi, P., Sharma, M. K., and Godla, J. K.; "Critical issues affecting an ERP implementation," Information Systems Management, 16(3) : 7-14, 1999.
- [10] Cheney, P. and Dickson, G. W.,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formation systems :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Academy of Managerial Journal, 25(1) : 170-184, 1999.
- [11] Davenport, T. H.; "Putting the enterprise into the enterprise system," Harvard Business Review, 76 : 121-131, 1998.
- [12] Iervolino, C. and Thomas, W. K.; "Overcoming Data Quality Challenges in Complex Organizations," Business Performance Management Magazine, 4(3) : 19-21, 2006.
- [13] SAP; SAP Master Data Management, SAP White Paper, 2003.
- [14] Thompson, J.; Organizations in Action, McGraw-Hill, New York, NY., 1967.